

# 아파트 '통경매' 쏟아진다

작년 8월 이후 광주·전남 13개 단지 3,028세대 매물로 나와

## 경기 침체에 임대사업자·건설사 자금난 심화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임대 사업자 및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수백가구의 아파트가 통째로 경매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9일 경매정보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광주·전남에서 통째로 법원 경매에 부쳐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모두 13개 단지, 3천28세대에 달한다.

월 평균 252세대가 매물로 나오고 있다.

시기별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8월 241세대를 기록한 뒤 9월 555세대로 급증했고 이후에도 매월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통경매로 부쳐졌다. 올해 들어서도 금융 위기 여파로 지난 3월 890

세대의 아파트가 대량으로 법원 경매에 나오는 등 물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순천 금강메트로빌 아파트의 경우 지난 3월 707세대가 한꺼번에 경매 시장에 쏟아졌고 광양 창덕에버빌이 504세대, 광주 서구 동산아파트 264 세대, 광주시 광산구 삼마미주 아파트 228세대 등도 매물로 나왔다.

이외 광주 광산구 금강아파트 183 세대, 장흥군 계명임대아파트 137세대, 광양시 효성아파트 136세대, 화순군 서리4차아파트 135세대 등의 통경매도 잇따랐다.

지지옥션은 경기 불황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임대사업자나 건설사가 자금 사정 악화로 금융권에

서 담보로 빌린 대출금이나 이자를 제 때 갚지 못하면서 통째로 넘어오는 경매 물건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 건설·부동산 경기 수도권보다 월씬 나쁘다는 점도 광주·전남의 통경매 물건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

전체 경매 물건도 급증했다. 올 상반기 광주·전남 경매법정에 나온 아파트 물건은 모두 5천2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574건)보다 236.3%나 증가했다.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지방 경기 침체가 심한 탓에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통째로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면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월 360만원 이상 소득자 연금 더 낸다

### 상한액 소득상승률로 매년 상향 조정

내년 4월부터 국민연금 납부 기준 상·하한액이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상승률에 연동해 매년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여론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말 국무 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

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 월액의 상하한선을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월 소득액 상승률과 연동해 매년 조정한다.

이로써 특히 월 소득 360만원이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연금 납부액은 내년 4월부터 매년 조금씩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상한액 이상을 베는 소득자도 360만원의 9%인 32만4천원을 내야했고 월 연금 소득자는 이중 절반은 고용주가, 절반은 본인이 부담해 왔다.

내년 월 소득 상승률이 2.05%라고 가정하면 상한액은 369만원으로 조정돼 월 평균 연금 납부액이 상한액 가입자의 경우 월 8천1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상한액 가입자의 경우 월 납부 부담은 종전보다 2.5% 늘지만 향후 연금을 수령할 때 지금보다 2만1천원(3.5%)을 더 받는다”면서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의 가입자는 보험료 변동없이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소폭 인상되는 효과를 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대우일렉, 속보이는 김치냉장고 출시

대우일렉(대표 이성)은 9일 투명 용기를 사용해 냉장고 문을 열면 내용물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클라쎄' 김치냉장고 2010년형 신제품(모델명 FR-Q351GNW)을 출시했다.〈사진〉

광주에서 생산되는 이 제품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안전승인을 받은 투명 재질의 파워워리스털 용기를 사용해 뚜껑을 열지 않아도 손쉽게 김치 보관량을 확인할 수 있고 산소투과율이 기존 제품의 15분의 1로 낮아져 김치를 장기 보관할 수 있는 특징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

## 한국 기업 환경 역대 최고

지난해 23위서 4단계 상승

### 세계은행 국가별 평가 조사

세계은행(WB)의 국가별 기업환경 평가 조사에서 한국이 역대 최고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9월 183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0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 2010)'에서 한국은 올해 19위로 지난해 23위에서 4계단 상승했다.

이는 2003년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가 시작된 이래 가장 좋은 순위다. 한국은 2003년과 2004년 23위, 2005년 27위, 2006년 23위, 2007년

22위, 2008년 23위에 머물렀다.

세계은행은 “통관절차 단축 등 수출입 관련 제도가 개선되고, 최저자본금 폐지 등 창업환경이 크게 개선되면서 한국의 전체 순위가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싱가포르가 4년째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지난해와 같이 뉴질랜드가 차지했으며, 홍콩, 미국, 영국, 러시아, 아일랜드,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일본은 지난해보다 3계단 떨어진 15위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한국을 앞섰고, 태국(12위), 사우디아라비아(13위), 스웨덴(18위) 등도 우리보다 앞섰다.

/연합뉴스

### 세금 잘 내면 금리 깎아 줍니다

#### 광주국세청-전북은행 최고 1%p 우대

‘세금 잘 내면 금리 깎아 줍니다.’

광주지방국세청과 전북은행이 모범 납세자에게 최고 1%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해주기로 했다.

광주지방국세청과 전북은행은 8일 전북은행 회의실에서 협약을 맺고 모범 납세자에게 대출금리를 인하해 주기로 했다.

대상은 지방국세청장 표창 이

상을 수상한 모범 납세자로, 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동안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리를 0.5~1.0% 범위내에서 우대 적용한다.

또 인터넷뱅킹·폰뱅킹·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및 유망 중소기업 선정시 10점의 범위내에서 가점부여, 신용등급 산정시 일정 요소에 대한 우대를 적용한다.

/장필수기자 bungy@

### 신한금융투자 하남지점

#### 광산 수완동으로 이전

신한금융투자는 광주 하남지점을 광산구 수완동 국선빌딩 2층으로 이전하며 지점명을 ‘수완지점’으로 바꿨다고 9일 밝혔다.

이전을 기념해 수완지점을 찾은 고

객에게 손톱깎이세트를 주고, 상품에 가입하거나 입금을 하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도 금남로에 있던 지점을 오는 14일 삼무지구 동양빌딩 2층으로 이전한다. 이날 이전식에는 이희원 신한금융투자 대표 이사도 참석할 예정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매우 좋습니다.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국제보청기**

전화 (02) 227-9940      수원 (061) 752-9940  
전화 (02) 227-9970      화성 (031) 262-9200  
전화 (02) 227-9940      원산 (063) 851-2422

**중소기업을 위한 핵심직무능력향상 교육**

**무선지향대상기기(중소기업·근로자) 사업주인증보증 개정안**

- 고액의 부채, 고액의 원금, 원금과 기관과 같은 대출
- 협력업체 미집행: 5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집행
- 기관별 대체임금 청탁금지법 위배: 개인으로 부과 기관
- 관리인 전문인력 전문인력

- 관리인 전문인력 전문인력

**국제화 전략 지원 프로그램**

- 협력업체 미집행: 5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집행
- 기관별 대체임금 청탁금지법 위배: 개인으로 부과 기관
- 관리인 전문인력 전문인력

- 관리인 전문인력 전문인력

**국제화 전략 지원 프로그램**

- 협력업체 미집행: 5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집행
- 기관별 대체임금 청탁금지법 위배: 개인으로 부과 기관
- 관리인 전문인력 전문인력

- 관리인 전문인력 전문인력